

마산개항 100주년 기념

제11회 '99마산



국제연극제

'99 MASAN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 기간 : 1999년 5월 1일(토)~5월 10일(월) 10일간
- 장소 : MBC홀, 올림픽 국민생활관 대극장(마산종합운동장내)
- 주 최 : 마산시, 마산시연극협회
- 주 관 : 마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극단 '마산'
- 후 원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 경남대학교
 ●KBS창원방송총국, ●MBC마산문화방송, ●PSB부산방송
 신경남일보, 昌原新聞, 慶南新聞, 교차로

■협찬:



한국마사회®



(주)국민파이낸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5월 4일)

극단『하늘 개인날』

- 작품 : 느낌, 극락같은
- 원작 : 이강백
- 연출 : 곽종필
- 장소 : 올림픽국민생활관 대극장(19:30~)

연출의 변

- 집착을 버리자 -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마음에 걸림이 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마음에 구속이나 장애가 없으면 마음이 편안하여 괴로움이 있을 리가 없다. 석가모니는 자유로운 해탈을 얻으려면 모든 집착을 버리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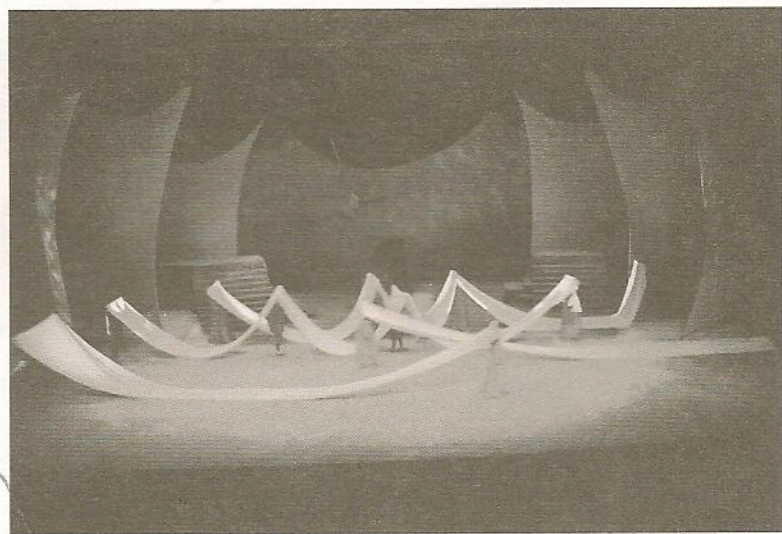
色卽是空 空卽是色(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물질적 존재가 공(空)하다는 뜻을 담고있다.

여기서 공(空)은 단순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무(有無)의, 그리고 근저(根底)의 부동(不動)한 것을 가리키며 거기서 모든 것이 흡수되는 원점, 즉 원 세계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공(空)의 세계는 얻을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다. 공(空)은 무아(無我)사상과 같은 말이다.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은 그 실체가 없으므로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짜의 모습이라도 있음으로 없다고 할 수 있는 비무(非無)의 상태이다.현상계에 나타난 만물의 실상은 공(空)하다. 실체가 없다. 온갖 세계의 참 모습이 실체가 없어서, 공(空)하다는 것을 여실히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지혜"라 한다.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사물의 참 모습인 공(空)의 도리를 깨우쳤을 때 편견에서 벗어나 올바른 인식작용이 가능하다. 어린이의 마음은 부처와 같다. 아직 분별력이 없어서 현상계와 비 현상계가 공존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분별이 생길수록 현상적 오감의 그림자에 가려 전체 본질을 잃고 집착하면서 욕심고 아집만이 남는다.

그렇다!

이제는 우리 모두 어릴 적의 순수한 초심(初審)으로 돌아 갈 때다.



작품줄거리

완벽한 형태에 집착한 동연, 그는 부처의 형태를 미숙하게 만들면 그 속엔 부처의 마음이 없지만 부처의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면 부처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고 믿는다.

이에 반해 서연은 완벽한 형태의 불상에서도 부처의 마음을 느낄 수 없음을 토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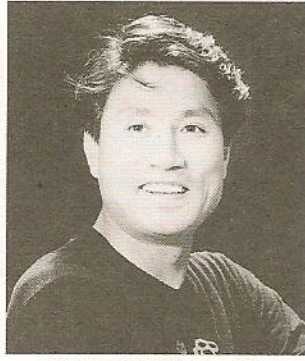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이는 불상 제작자 서연의 고민거리다.서연의 방향은 이때부터 시작된다.그의 가출은 정처 없는 방랑 길로 이어진다.

한편 동연이 만든 불상은 최고의 형식미를 자랑하며, 스님에게 최고가로 팔려나간다.

의기 양양해진 동연은 자신이 스승 함묘진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점차 노쇠하여진 스승 함묘진, 하반신 마저 마비된 스승은 휠체어에 몸을 싣고 술에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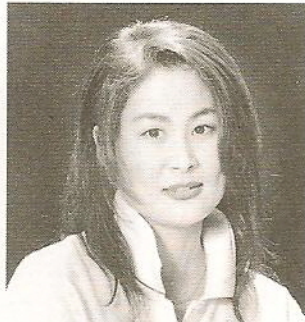
● C A S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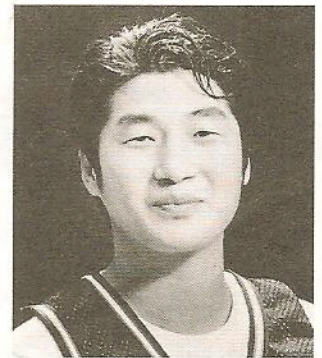
함묘진/권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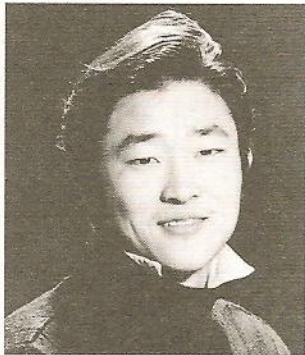
서연/이정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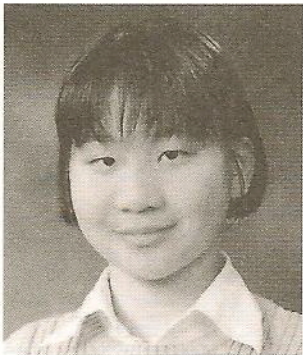
함이정/박미향



동면/황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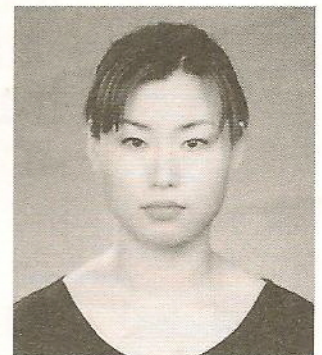
조승인/김종만



무리들/조민정



무리들/고지선



무리들/서혜경



무리들/이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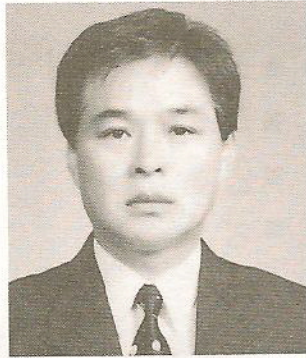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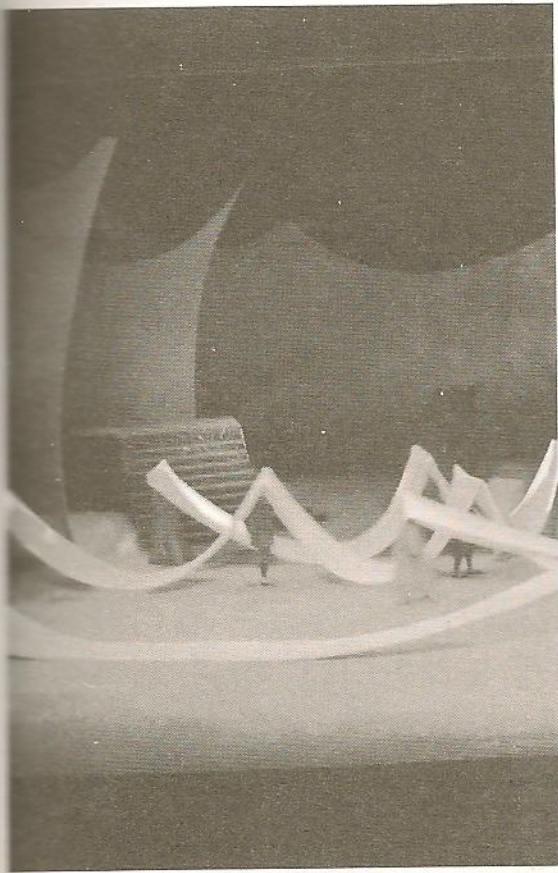
무리들/정유미



무리들/주정녀

◆ 찬조출연 / 부산여자대학 생활체육무용학과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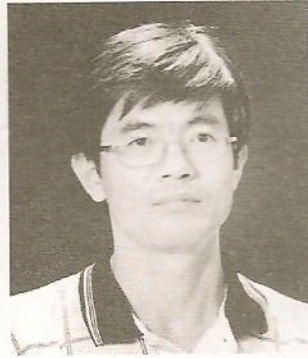
고문/유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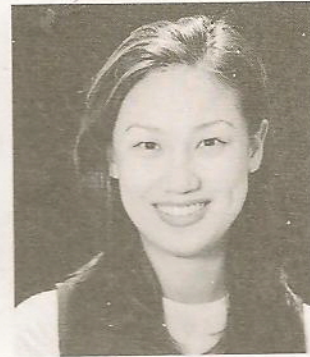
대표/최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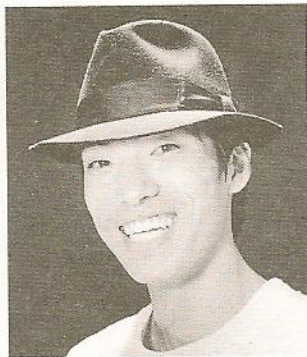
연출/곽종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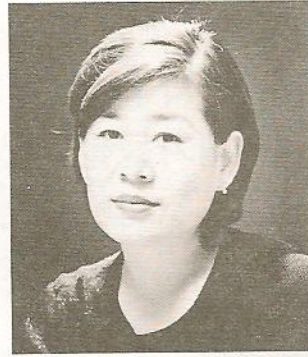
무대장치/김인덕



소품/박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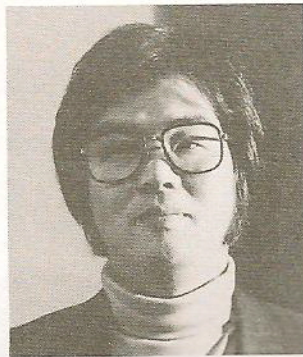
음향/성낙경



분장/손서운



무대디자인/
김유리라



작곡/박철홍



의상/이로사



조명디자인/
윤준호

MITF



제17회

마산국제연극제

Masan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2005. 5. 21 ▶ 31 (11일간)

마산돌섬가고파랜드

- 주최 :  사단법인마산국제연극제진흥회 •  MBC 마산문화방송
- 후원 :  문화관광부 •  경상남도 •  마산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경남신문 •  경남도민일보
-  慶南日報社 •  부산일보 •  국제신문
- KBS  창원방송총국 •  PSB 부산방송
-  마산상공회의소 •  경남대학교 •  한국연극협회 •  경남연극협회 •  마산예총
- 협찬 :  경남에너지(주) •  광득종합건설(주) •  마산대우백화점

■ 문의처 : 마산국제연극제 사무국 TEL : (055)252-4428~9 / FAX : (055)252-4421

www.mitf.or.kr



부산광역시

극단『하늘 개인날』

5. 26(목)/오후 8시, 10시
갈매기극장

◆작품명 : 권철 모노드라마 "호랑이 아줌마"

■ 작 / 다리오 포

■ 연 출 / 곽종필

작 품 해 설

1. 다리오 포의 특이한 연극 "호랑이 아줌마(A Tale of a Tiger)"는 원래 중국의 장터 연극 형식으로 이루어진 모노드라마를 다리오 포가 다시 옛날 이탈리아의 코메디 델라르테 형식으로 만들어 1978년 처음 공연하였음.
2. 큰 줄거리 - (원작)
용기의 이야기다. 중국 대장정에 참여했던 한 병사가 부상당하고 낙오되어 혹독한 고생을 겪는 중에 호랑이를 만나 죽을 위기에 이른다. 그러나 서로 도와주면서 가족같은 사이가 되고, 그 덕분에 남자는 몸도 낫고 기분도 좋아진다. 그러다가 호랑이들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자, 용기를 내어 뛰쳐나와 마을로 달아난다. 그러나 그를 찾아온 활이와 다시 화해하며 적들을 모두 물리친다.
3. 드라마트루기의 재 각색
-작품 주인공인 한 남자를 일제시대 때 강제로 일본군에 의해 민족정기의 상징인 백두산 호랑이 몰살 만행에 끌려가서 가까스로 탈출하고 그 와중에 모택동 군대를 만나는 것으로 설정.
-극의 마침을 원작과 달리 민족정신의 수호와 주변의 복잡한 정세를 한민족의 힘으로 지켜 나가자는 것으로 마무리.
4. 분석
훌륭한 예술작품이 그렇듯이 이 작품에도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다. 용기의 중요성, 불평등에 대한 반항, 이질적인 두 세력의 타협과 화해, 반전, 정치가들에 대한 불신, 여성운동... 그리고 코미디로 가려냈지만 다분히 선동적인 요소가 있는 정치극이다.
작품속의 남자가 긍정적 사고와 논리를 가졌다면 호랑이는 용기의 상징이다. 그러나 다듬어지지 않은 비이성적인 용기는 야생호랑이처럼 거칠고 무서울 뿐이다. 남자는 호랑이에게서 용기를 배우고, 호랑이들은 남자에게서 인간을 배운다. 이렇게 용기와 이성이 합쳐진 순간들을 하나가 되었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용감한 모습이 된다.
5. 단계별
 - 1장. 다리오 포 작가 소개 - 배우와 관객거리 좁히기
 - 2장. 대장정과 부상에서 낙오 소개 - 긍정적이고 용감하지만 주변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
 - 3장. 홍수, 굶, 호랑이 찢먹기 - 가장 무서운 위기까지 갔다가 호전되기 시작한다.
 - 4장. 호랑이 침, 찢먹기, 새끼 길들이기 -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얘기
 - 5장.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회상, 생고기 - 이질적인 두 그룹의 불평등한 모습을 표현
 - 6장. 요리 - 논리적인 자기 주장
 - 7장. 호랑이와 요리 - 상대를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것
 - 8장. 호랑이와의 인연 - 상대와의 극적인 친밀감 계기
 - 9장. 부역일 고생 - 극한 상황에서의 용기
 - 10장. 탈출, 마을도착 - 터닝 포인트
 - 11장. 노래 - 코믹 릴리프
 - 12장. 호랑이 합세 - 이성과 용기의 결합
 - 13장. 일본군, 호랑이 역습 - 관객에게 용기 확인
 - 14장. 정치위원장, 당지도자, 당간부 - 논리의 허상
 - 15장. 민족정신 - 결론
6. 언어
해설은 표준말, 특히 극중에서 해설과 인물들과 언어를 철저히 구분

C A S T



권 철

S T A F F

연출/곽 종 필

각색/박 준 용

드라마트루크/정 봉 석

무대/김유리라

무대미술/김 인 덕

조명/윤 준 호

음악(연주)/ 이 세 호